

◆…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당뇨병은 임상적 및 검사 성적의 특성에 따라 제Ⅰ형(인슐린의존형, 소아형) 당뇨병과 제Ⅱ형(인슐린비의존형, 성인형) 당뇨병으로 분류한다. 제Ⅰ형 당뇨병은 주로 30세 이전의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체중이 정상이하로 낮으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혼수에 빠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고, 제Ⅱ형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발병하며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비만증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나 지방세포 등 말초조직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sensitivity)이 둔화되어 당대사장애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필자등이 1986년 연세



許甲範

<延世醫大內科 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운동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과 인슐린 수용체의 감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포도당 이용률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당뇨병환자의 운동
대사변화

당뇨병환자에서는 인슐린과 조절호르몬의 분비 및 혈중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육체적인 운동에 대한 대사반응이 정상인 경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슐린 의존형(제Ⅰ형) 당뇨병 환자에서 더욱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제Ⅰ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1일 1~2회 주사하면 혈청인슐린농도의 파임과 부족이 반복되어 혈당의 변동폭이 심할 수 있다. 한편 제Ⅰ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부족으로 ketosis가 초래되었을 때 운동을 하면 혈당치와 케톤체 생산은 증가함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과잉상태일 때 운동을 하면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칼로리를 과잉섭취하면서 운동량이 부족하면 비만증

환자의 체중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면 말초조직의 순환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 및 지방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감수성을 높이며, 또 수용체후 과정(postreceptor process)을 활성화하여 인슐린반응(insulin responsiveness)도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말초조직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킨다.

또 육체적인 운동은 지질대사장애를 교정(혈청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감소 및 HDL-cholesterol 증가)하고 혈청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키며 고혈압을 완화하여 제Ⅱ형 당뇨병의 주된 사망원인인 조기동맥경화증(premature atherosclerosis)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운동요법은 혈소판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혈전증의 예방에도움이 된다고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뇨병환자의 중요한 사인이 되는 동

運動과 健康

특집

려져 있다. 그러나 고인슐린혈증과 지질대사 장애는 당뇨병 환자의 초기동맥경화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면 고인슐린혈증과 지질대사장애가 교정되며, 이것은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요법의 실제

운동은 각자의 취미에 따라 하되, 우선 가벼운 운동, 예를 들면 산책이나 도수체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시작한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하여야 하며, 운동시간은 가급적이면 식후 30분에 혈당치가 가장 높을 때에 시작하여 약 30분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의 종류에 따른 매시간 당 칼로리소모량을 보면 산책이 시간당 240 칼로리가 소모되고 골프 300 칼로리, 정구 420 칼로리, 자전거타기 450 칼로리, 수영 720 칼로리, 등산 780 칼로리가 소모된다. 따라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영이나 등산과 같이 격심한 운동은 피하고 산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한편 당뇨병 환자가 운동요법을 시작할 때에 유의할 사항을 보면, 첫째 심한 고혈압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협심증)이 병발된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둘째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에서는 심한 운동을 오래 계속하면서 혈당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

運動요법의 실시 요령과 효과

동요법을 계속하였다. 후자의 방법으로 혈당치가 140mg 이하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실패군으로 판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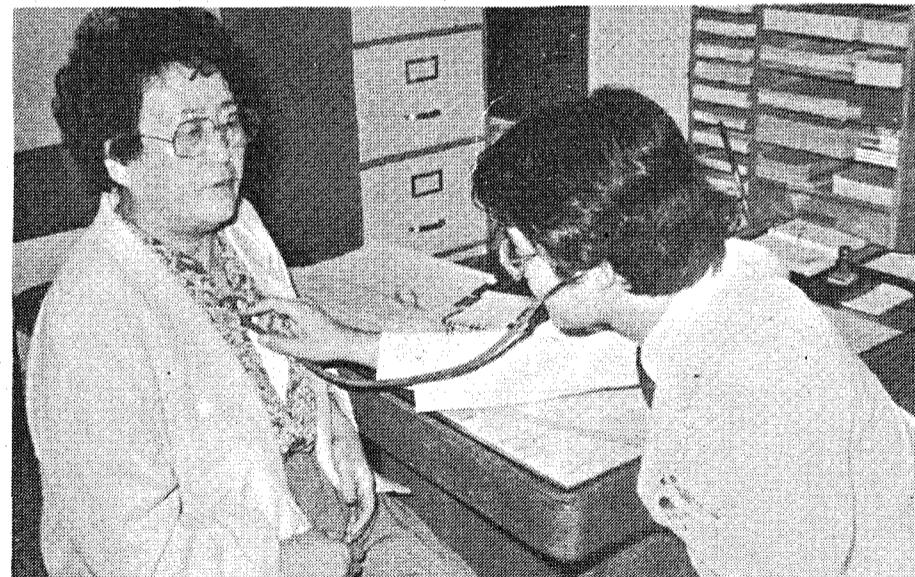
61례의 당뇨병환자 중에서 28례(46%)는 식사와 운동요법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었고 19례(31%)는 일시적인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조절이 가능하므로 전환자의 77%가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조절에 성공하였고, 23%만이 실패하였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성공군과 실패군의 입원 당시 체중과 퇴원시의 체중 감소율을 각각 비교하여 본 결과, Ⅱa(비비만군)와 Ⅱb(비만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전의 공복혈당도 성공군과 실패군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성공한 환자군과 실패군의 특성을 관찰한 바,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9년 이상으로 길거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신경증, 망막증, 신증)이 있는 경우 및 과거에 경구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사용한 환자에서는 실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요법은 당뇨병 조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제Ⅱ형 당뇨병환자에 있어서는 체중조절과 당대사장애의 정상화 및 조기동맥경화증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필자등의 제Ⅱ형 당뇨병 조절에 관한 높은 성공률은 2주간의 단기 입원환자에 대한 성적으로, 식이 및 운동요법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환자의 교육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퇴원 후 추적 관찰하여 장기간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것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방법은 식사 30분후 30분간實施적 당동맥경화증 및 혈전증豫防에도 매우重要



을 초래하여 제Ⅱ형 당뇨병을 유발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제Ⅱ형 당뇨병에서의 운동요법은 체중조절과 혈당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만증이 있는 제Ⅱ형 당뇨병 환자의 식사나 경구혈당강하제 치료시에 육체적인 운동에 대한 급성반응을 보면 45분간 중등도의 운동으로 혈당치가 유의하게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기전은 운동중 간장의 포도당 생산량에 비하여 근육에서의 사용량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요법의 효과

당뇨병의 조절에 있어서 운동요법이 유익한 이유를 보면 즉 운동요법을 식이요법과 병행하면 비만한 제Ⅱ형 당뇨병

맥경화증의 위험요소를 보면 이를 요소는 특히 제Ⅱ형 당뇨병환자에서 빈번히 보는 것들로써 흡연을 제외하면 운동요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호전되는 것들이므로, 이 사실로써도 당뇨병 조절에 있어서 운동요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동맥경화증의 병인에 있어서 당뇨병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①고혈당증 ②고인슐린혈증 ③지질대사 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고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면 당화단백(glycosylated protein)의 상증가로 이것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세소혈관병증(microangiopathy)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맥경화증의 발생에는 고혈당증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

으로 미리 이에 대비하도록 환자에게 주의를 시켜야 한다.

◆실제 조절성적

최근에 필자등이 61례의 제Ⅱ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식이 및 운동요법을 시행하여 얻은 조절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식이요법은 환자의 비만정도에 따라서 1일 800~1,200 칼로리(당질 50%, 단백질 20%, 지방질 30%)로 하였고, 운동량은 1일 2시간 이상 산책을 하게 하였으며, 이상의 방법으로 약 5일간 시행하여 공복혈당치가 140mg %이하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투여하여 공복혈당이 140mg 이하로 조절되면 약제를 중단하고 식이 및 운